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5): 668~680 (200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민족 정체성과의 관계

정 영 숙[1†] · 박 영 선[2]

[1]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2]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National Identity of Uzbekistan-Koreans

Young-Sook Chung[1†] and Young-Sun Park[2]

[1]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Daegu 712-714, Korea
[2]Dept. of Food and Nutrition, Daegu University, Daegu 712-714,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the national identity of Uzbekistan-Koreans. National identity was characterized into 4 dimensions, i.e., psychological identity, national independence, compatriot affection, and continuance of national culture. Data were collected from 634 Koreans living in Uzbekistan and were analyzed by chi-square and ANOV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national identity of Uzbekistan-Koreans, and that the dimensions of national identity are likely to vary depending on generation, educational level, and hometown of Uzbekistan-Korean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by national identity a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for food and nutrition specialists,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 an interest in traditional food in connection with the folk culture in Asian areas, are provided.

Key words : Uzbekistan-Korean,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national identity.

서 론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계 동포가 이민 1대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현지 문화에 적응하며 살고 있다. 구소련에는 냉전 종결시 40만명을 웃도는 한국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8),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이 신생 독립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편입되면서 우즈백 문화가 새로운 준거 대상으로 떠올랐다. 중앙아시아의 소수 민족인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대거 이주한 계기는 1937년 러시아에 의한 강제 이주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18만 명의 고려인이 연해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이듬해인 1938년에 2차로 중앙아시아 각지와 러시아 지역으로 분산 거주하게 되었다(Lee & Lee 2004). 1980년부터 민족주의와 이슬람 부흥 운동을 전개했던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에 구소련이 와해되면서 독립하였고, 1992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사회와 본격적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제약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중앙아시아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고, 해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족 의식을 갖기 위해 문화적 공통성을 갖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왔다. 민족성을 유지하고 민족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일련의 문화적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화적 동질성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전통 식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다. 고려인의 의식주 생활상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의 전통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영역은 식생활이며, 고려인들은 여전히 김치를 먹고 있으며, 이것으로 김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Chung 2004).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른 민족을 의식하며 그들과의 대비 속에서 생활함으로 우리의 전통 음식을 그들은 민족 음식 또는 고려음식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들이 인식하는 전통식생활 문화의 가치는 첫째, 생명 유지 및 종족 보존을 위한 합리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오랜 생활 체험과 지역 환경에의 적응을 통해 수정·보완해온 것이므로 과학적 근거가 있고, 셋째, 각 민족이 갖는 개성이 있어 문화적

†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k Chung, Tel : +82-53-850-6815, Fax : +82-53-850-6819, E-mail : annach@daegu.ac.kr

획일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넷째, 고려인들로 하여금 심리적 동질성·동포애·독자성·지속성 등과 같은 민족 정체성을 갖게 하므로 문화 유산으로 소중한 것이다. 다섯째, 식생활 문화는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전통적 요소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주거 공간이나 복식구조와 달리 민족 정체성과 가장 연관성이 깊다. 실제로 고려인의 의식주 생활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Kang JS 2001, Jeong JY 2004, Lee 등 2004)에 의하면 한국인의 전통적 양식이 가장 잘 보존, 유지되고 있는 영역은 식생활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으로 러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생활 방식과 문화적 유산은 한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치, 사회적으로 러시아에 밀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방화·서구화된 우리 사회와 달리 폐쇄된 사회체제로 인해 기본적으로 고려인 사회 내에서 한민족 고유의 전통 풍습이나 관습이 외래 문화의 영향을 덜 받은 채 보존·계승되고 있다. 식생활 문화의 전통성은 거주 지역의 이동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본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진 것까지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식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인류학자들은 먹는 행위를 의사 소통의 매개물로 보고 이를 통해 사회관계와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같이 먹는 행위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보았고, 민족 간의 정체성을 구분하는데 있어 음식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즉, 민족 음식은 집단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가장 명백한 방식 중의 하나로 작용해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유태인이나 힌두교도의 특정 음식 금기 행위는 단순히 어떤 종류의 음식을 금기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메커니즘으로 적용한 것이다.

Appadurai RD(1998)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새로운 인도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요리책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도 강제 이주 후 힘들게 벼농사를 정착시키면서 쌀이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미국 내에는 멕시코, 이탈리아, 중국 등을 비롯하여 각각의 민족을 상징하는 음식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로 각 민족 이민자들의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Buckster A(1999)는 덴마크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음식과 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고, Tan CB(2001)은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음식이 중국인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식생활 문화는 한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계승되며 변화된 환경에서도 본질은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려인의 전통 식생활에 대한 탐색은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의 지속성에 대한 미래적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구소련 붕괴, 신생독립국으로의 편입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음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자신의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민족 정체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논의는 하고 있으나 실증적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민족 정체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고려인의 한국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민족 정체성이란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 생활 풍습인 고려인의 전통 식생활 문화의 본질을 규명하고, 민족 공동체 정서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한국 전통 음식사를 정립하는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 자료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700명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8일에서 11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 현지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 설문지는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된 것이며, 수집 방법은 고려인 주부들이 면접원의 역할을 하였고, 일정 분량의 설문지를 이들 주부에게 배당시켜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심 지역이면서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은 타슈켄트 지역이며, 타슈켄트에서 고려인의 주요 거주지인 콜호즈(협동농장)를 포함하여 인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콜호즈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려인 노인 세대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오늘날의 한국인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사 대상자 일부는 구 소련시대의 기본 학제인 10학년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문자 해독력이 없는 고령층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또는

면접 방식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700부였으나, 그 중 응답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결측치가 다수 포함된 설문지는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어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적용된 조사 대상 고려인 수는 634명이다.

2. 조사 도구 및 자료 분석

조사 도구는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이고, 또 다른 영역은 민족 정체성을 규명하는 영역이다.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영역에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 한국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
- 명절과 가족 행사시 한국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의 이용도
- 한국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
- 외래 음식과 비교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평가
- 한국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한 인식
- 한국 전통 음식의 개발 필요성과 방향
- 개발된 한국 전통 음식의 이용 여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특성은 선행 연구들(Buckster A 1999, Lim Y 2007)을 토대로 심리적 동일성, 독자성, 동포애, 지속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특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심리적 동일성 : 평소에 자신이 고려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 독자성 : 평소에 고려인의 핏줄을 이어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동포애 : 한국인(고려인)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
- 지속성 : 고려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특성별 척도는 5점 Likert 형으로 구성되었으며, 3점을 기준으로 정체성이 높고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심리적 동일성, 독자성, 지속성은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는데 비해, 동포애는 친근감이 높고 낮음 또는 가깝거나 멀게 느끼는 것으로 집단별 수준이 구분된다.

우즈베키스탄 지역 고려인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로 처리하였다. 민족 정체성 특성별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된 변수는 ANOVA로 분석하였고, 명목척도로 구성된 변수는 χ^2 검증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녀 비율이 각각 48.8%와 51.2%로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는 러시아 극동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직후 태어나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콜호즈(Kolkhoz)에서 힘들게 정착했던 현재의 노인들인 2세대는 전체의 36.8%인데 비해 강제 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 어려운 정착생활 경험 없이 성장하고 도시에서 교육 받은 3세대의 분포는 63.2%로 2세대에 비해 월등히 더 높았다. 교육수준은 무학(10.8%)과 초등학교 졸업(4.1%)이 15% 정도 되며, 중졸(18.5%), 고졸(19.0%) 비율이 비슷하였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졸자가 47.8%로 가장 높았다.

가족 유형은 전체의 15.7%가 확대가족이고, 나머지 84.3%는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향은 도시가 5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시 근교로 23.9%이며, 협동 도시인 콜호즈가 고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8%로 가장 적었다. 콜호즈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심 지역이면서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은 타쉬켄트의 주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사는 18.8%의 대부분은 50대 후반을 포함한 60세 이상의 노인 연령층이며, 이들은 아직도 하루 한 끼 이상을 밥과 국, 김치를 비롯하여 이들이 고려음식이라고 부르는 한국 전통 음식을 먹고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634)

Variables	Categories	N [a]	%
Sex	Male	299	48.8
	Female	314	51.2
Generation	2nd generation	233	36.8
	3rd generation	401	63.2
Education	No school	66	10.8
	Elementary school	25	4.1
	Junior high school	113	18.5
	High school	116	19.0
	College	292	47.8
Family type	Nuclear family	532	84.3
	Extended family	99	15.7
Hometown	Urban	354	57.3
	Near rural	148	23.9
	Rural(Kolkhoz)	116	18.8

[a] Each total is less than 634 due to missing data.

2.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동일성

1) 심리적 동일성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민족 정체성의 한 특성인 심리적 동일성(Psychological Identity, PI)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여러 특성 중 세대, 성별, 가족 유형은 심리적 동일성과 관계가 없는데 비해, 학력과 고향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력의 경우, PI-lo는 무학과 초등졸이 한 명도 없었으나 PI-mo나 PI-hi는 각각 13.1%(10.5% vs. 2.6%)와 15.7%(11.3% vs. 4.4%)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대졸은 PI-lo 집단이 51.1%로 가장 많고, PI-mo가 39.5%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심리적 동일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심리적 동일성은 고향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데 세 집단 모두 도시가 고향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도시 근교라고 응답한 경우는 PI-mo 집단이 41.0%로 가장 많았고, 협동도시인 콜호즈라고 응답한 경우는 PI-hi 집단이 30.7%로 가장 많았다.

콜호즈에는 현재 다수 고려인 노인세대가 살고 있으며,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강제 이주 이후 고난과 역경을 거듭하며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보급하고 삶의 터전을 잡고 난 다음 태어난 세대가 자녀 세대이다. 부모 세대인 노인들은 다수가 타슈켄트의 콜호즈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고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들 노인의 전통에 대한 애착은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삶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전통 문화의 명맥을 이어 왔다. 김치나 된장, 국수 등의 고유음식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것도 이들 고려인 노인 세대의 전통적 식생활 때문이다.

2)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동일성과의 관계

평소에 자신이 고려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심리적 동일성과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가 Table 3과 4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 동일성(Psychological Identity, PI)은 전통 음식 관련 항목들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심리적 동일성을 높게 평가하는 집단일수록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통 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심리적 동일성과 정적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identity group

Variables	Categories	Psychological identity(PI)			χ^2
		PI-lo(Low)	PI-mo(Moderate)	PI-hi(High)	
Generation	2nd	39.1	33.8	37.1	0.39
	3rd	60.9	66.3	62.9	
Sex	Male	71.4	53.8	50.0	3.95
	Female	28.6	46.2	50.0	
Education	No school	0	10.5	11.3	16.45*
	Elementary	0	2.6	4.4	
	Junior high	9.5	21.1	18.5	
	High school	33.3	26.3	17.7	
	College	51.1	39.5	48.1	
Family type	Nuclear	95.7	78.5	84.7	4.32
	Extended	4.3	21.5	15.3	
Hometown	Urban	63.6	50.0	48.1	18.20**
	Near rural	27.3	41.0	21.2	
	Rural(Kolkhoz)	9.1	9.0	30.7	
Total %(n)		100(23)	100(80)	100(531)	

* $p<0.05$, ** $p<0.01$.
Total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집단 중 심리적 동일성이 낮은 집단인 PI-lo가 3.14로 가장 낮았고, 높은 집단인 PI-hi가 4.1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이 보통인 PI-mo와 PI-hi 간은 차이가 없고 이 두 집단과 PI-lo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래 음식과 비교한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I-lo가 가장 낮고, PI-hi가 가장 높았다.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역시 세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PI-mo(4.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PI-hi(4.26)이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한 인식은 세 집단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인식 수준이 PI-mo와 PI-hi 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비해, 이 두 집단과 PI-lo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통 음식이 즉석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이용의사는 PI-lo(3.78)와 PI-mo(3.90)는 차이가 없고, 이 두 집단과 PI-hi(4.26)와는 차이가 있었다.

가족 행사와 명절 때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의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 행사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데 비해 명절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행사에는 심리적 동일성과 관계없이 다수가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을 반반씩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통 음식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명절 때는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을 반반씩 이용하는 비율은 심리적 동일성이 낮은 집단인 PI-lo는 73.9%인데 비해, 동일성 수준이 보통인 PI-mo와 수준이 높은 PI-hi는 각각 69.3%와 64.6%로 나타났다. 전통 음식만 이용하는 비율은 PI-hi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 집단 모두 맛이 좋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 비율은 PI-lo(73.1%)보다 PI-hi(81.5%)나 PI-mo(86.3%)가 더 높았다. PI-lo 집단은 맛에 익숙(14.9%)하거나 조리 방법(12.0%)이 특이해서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PI-hi는 영양이 좋아서(11.5%) 전통 음식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옛날 그대로 전수해야 한다는 비율은 PI-mo 집단(59.5%)이, 부분적 개발에 대한 비율은 PI-hi 집단(61.0%)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의 개발 방향에 대해 구체적 의견이 없는 경우는 PI-lo 집단이 40.1%로 가장 많았고, PI-hi가 3.2%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PI-lo 집단도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한 인식은 4.04로 높았다. 이러는 결과는 결국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해서는 고려인 사회 모두가 절대적으로 당위성을 인지하지만,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평소 자신이 고려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심리적 동일성이 높은 집단이 좀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3.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독자성

1) 독자성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자성(National Independence, NI)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동일성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고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세 집단 모두 대졸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 비율은 독자성이 낮은 NI-lo 집단(52.6%)이 더 높았다. 중졸, 고졸의 비율은 독자성이 보통인 NI-mo 집단이 각각 26.3%와 23.7%로 더 높았다. 고향은 세 집단 모두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도시가 고향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도시 근교가 고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NI-lo(27.8%)나 NI-mo 집단(28.9%)이, 콜호즈가 고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NI-hi 집단(21.2%)이 더 높았다.

Table 3. Psychological identity group and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Ⅰ

Variables	Psychological identity(PI)			*F* ratio
	PI-lo(Low)	PI-mo(Moderate)	PI-hi(High)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3.14[a]	3.63[b]	4.15[c]	5.19**
Table arrangement of traditional food	2.74[a]	3.50[b]	3.54[b]	11.07**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3.91[a]	4.14[b]	4.47[c]	7.59**
Affecting traditional food on health	3.76[a]	4.78[b]	4.26[c]	9.22**
Succeed & development of traditional food	4.04[a]	4.60[b]	4.77[b]	6.96**
Intention of using modernized traditional food	3.78[a]	3.90[a]	4.26[b]	3.21*
Total N	23	80	531	

*$p<0.05$, **$p<0.01$.
Different superscripts (a~c) in a row indicate differences ($p<0.05$) in mean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able 4. Psychological identity group and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Ⅱ

Variables	Categories	Psychological identity(PI)			χ^2
		PI-lo(Low)	PI-mo(Moderate)	PI-hi(High)	
Preparing food for family events	Foreign food	0	0.5	0.2	1.24
	Half & half	73.9	64.6	69.3	
	Traditional food	26.1	34.9	30.5	
Preparing food for national holidays	Foreign food	0	0.2	0	8.96*
	Half & half	73.9	69.3	64.6	
	Traditional food	26.1	30.5	35.4	
Reasons for preferring traditional food	Nutritional factor	0	6.3	11.5	32.64**
	Flavor	73.1	86.3	81.5	
	Used to eat	14.9	6.1	6.2	
	Way of cooking	12.0	1.3	0.8	
Need to develop traditional food into modernized	Tradition as it is	36.1	59.5	35.9	79.68**
	Partial modernizing	23.8	27.8	61.0	
	Do not know	40.1	12.7	3.2	
Total(n)		100(23)	100(80)	100(531)	

* $p<0.05$, ** $p<0.01$.
Total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Table 5.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ational independence

Variables	Categories	National independence(NI)			χ^2
		NI-lo(Low)	NI-mo(Moderate)	NI-hi(High)	
Generation	2nd	39.1	31.8	38.0	2.22
	3rd	60.9	68.1	62.0	
Sex	Male	46.2	56.9	51.0	3.56
	Female	53.8	43.1	49.0	
Education	No school	13.6	9.9	10.0	40.38**
	Elementary	7.8	3.3	2.6	
	Junior high	8.4	26.3	19.6	
	High school	17.5	23.7	18.0	
	College	52.6	36.9	49.8	
Family type	Nuclear	83.8	87.8	82.9	1.99
	Extended	16.3	12.2	17.1	
Hometown	Urban	58.2	52.3	59.2	8.77*
	Near rural	27.8	28.9	19.6	
	Rural(Kolkhoz)	13.9	18.8	21.2	
Total %(n)		100(161)	100(157)	100(316)	

* $p<0.05$, ** $p<0.01$.
Total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Table 6. National independence group and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Ⅰ

Variables	National independence(NI)			*F* ratio
	NI-lo(Low)	NI-mo(Moderate)	NI-hi(High)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3.48[a]	3.70[b]	3.67[b]	4.51*
Table arrangement of traditional food	3.40[a]	3.51[b]	4.03[c]	4.02*
Comparing traditional food w. foreign food	4.08[a]	41.9[b]	4.45[c]	16.13**
Affecting traditional food on health	3.57[a]	3.79[b]	4.21[c]	20.81**
Succeed & development of traditional food	4.74	4.78	4.69	0.49
Intention of using modernized traditional food	3.90[a]	4.01[ab]	4.10[b]	4.71**
Total N	161	157	316	

* $p<0.05$, ** $p<0.01$.
Different superscripts (a~c) in a row indicate differences ($p<0.05$) in mean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2)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독자성과의 관계

평소에 고려인 핏줄을 이어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독자성(National Independence, NI)은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NI-mo와 NI-hi는 차이가 없고 이 두 집단과 NI-lo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은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중 NI-hi가 4.03으로 가장 높았다. 외래 음식과 비교한 전통 음식의 선호도는 세 집단 모두 4점이 넘는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PI-hi 집단이 4.45로 가장 높았다.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역시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NI-lo(3.57)나 NI-mo(3.79)에 비해 NI-hi(4.21)가 특히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으나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자성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고려인 모두가 전통 음식은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통 음식이 즉석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이용할 의사에 대해서는 세 집단 중 NI-lo(3.90)와 NI-hi(4.10)만 차이가 있었다.

가족 행사시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의 이용도는 세 집단 모두 반반씩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통 음식만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독자성이 보통인 집단(NI-mo)보다 낮거나(NI-lo), 높은 집단(NI-hi)이 전통 음식의 이용률도 높았다. NI-lo 집단이 전통 음식의 이용률이 높은 경향은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양, 맛, 조리 방법 등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들 중 맛이 좋아서 전통 음식을 선호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NI-lo 집단은 전체의 90.6%가 전통 음식이 맛이 좋아서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NI-mo(86.0%)나 NI-hi(75.3%)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영양이 좋아서(15.2%), 맛에 익숙해서(8.9%) 전통 음식을 선호한다는 비율은 NI-hi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한 방향은 독자성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NI-lo(61.8%)나 NI-mo(60.7%)는 현대인의 입맛에 맡게 부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NI-hi는 동 비율이 28.0%에 불과하였고, 옛날 방식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65.0%로 가장 높았다. 전통 음식이 즉석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이용할 의향은 세 집단이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NI-lo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4.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동포애

1) 동포애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동포애(Compatriot Affection, CA)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세대, 성별,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과 고향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무학 비율은 고려인에 대한 친근감이 보통인 CA-mo 집단(27.5%)이 가장 높았고, 친근감이 낮은 CA-lo 집단이 7.5%로 가장 낮았다. 중졸과 고졸 비율은 집단 간에 큰 차이 없이 각각 18~19%로 비슷하였으나, 대졸 비율은 집단 간 차이가 컸다. 즉, CA-lo 집단의 대졸 비율은 5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CA-hi 집단으로 45.7%였으며, CA-mo 집단이 32.6%로 가장 낮았다. 고향은 세 집단 모두 도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 비율은 고려인에 대한 친근감이 보통인 CA-mo 집단이 70.0%로 다른 두 집단 보다 더 높았다. 도시 근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친근감이 낮은 CA-lo 집단이 28.3%로 더 높았고, 콜호즈라고 응답한 비율은 CA-hi 집단이 25.0%로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7. National independence group and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Ⅱ

Variables	Categories	National independence(NI)			χ^2
		NI-lo(Low)	NI-mo(Moderate)	NI-hi(High)	
Preparing food for family events	Foreign food	0	0	0.3	11.98**
	Half & half	66.7	79.5	64.6	
	Traditional food	33.3	20.5	35.1	
Preparing food for national holidays	Foreign food	0	0.6	0.7	12.19**
	Half & half	66.7	78.8	63.9	
	Traditional food	33.3	20.5	35.4	
Reasons for preferring traditional food	Nutritional factor	3.1	8.3	15.2	27.76**
	Flavor	90.6	86.0	75.3	
	Used to eat	3.8	4.5	8.9	
	Way of cooking	2.5	1.3	0.6	
Need to develop traditional food into modernized	Tradition as it is	35.4	29.7	65.0	82.56**
	Partial modernizing	61.8	60.7	28.0	
	Do not know	2.9	9.6	7.0	
Total(n)		100(161)	100(157)	100(316)	

** $p<0.01$.
Total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Table 8.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mpatriot affection

Variables	Categories	Compatriot affection(CA)			χ^2
		CA-lo(Low)	CA-mo(Moderate)	CA-hi(High)	
Generation	2nd	35.2	47.0	35.3	4.31
	3rd	64.8	53.0	64.7	
Sex	Male	50.7	51.3	52.4	0.14
	Female	49.3	48.8	47.6	
Education	No school	7.5	27.5	10.5	49.41**
	Elementary	3.7	2.5	5.6	
	Junior high	18.4	18.8	18.5	
	High school	19.2	18.8	19.8	
	College	51.2	32.6	45.7	
Family type	Nuclear	85.1	85.5	81.9	0.98
	Extended	14.9	14.5	18.1	
Hometown	Urban	53.7	70.0	59.1	18.01**
	Near rural	28.3	20.0	15.9	
	Rural(Kolkhoz)	17.9	10.0	25.0	
Total %(n)		100(384)	100(83)	100(167)	

** $p<0.01$.
Total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2)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동포애와의 관계

한국인(고려인)에 대한 친근감을 반영하는 동포애(Compatriot Affection, CA)와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9와 10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 동일성 및 독자성과 달리 전통 음식과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은 동포애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 음식이나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한국인 또는 고려인에 대한 친근감을 반영하는 동포애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고려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심리적 동일성이나 고려인의 핏줄을 이어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독자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한다.

외래 음식과 비교한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세 집단 모두 높았으며, CA-lo와 CA-mo 간 차이는 없고 이 두 집단과 CA-hi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역시 CA-lo(3.97)와 CA-mo(4.02)는 차이가 없고 이 두 집단과 CA-hi(4.39)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 집단 중 CA-hi가 4.3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한국인 또는 고려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CA-hi 집단이 전통 음식이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고려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CA-hi 집단이 5점 척도에 4.80의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집다 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세 집단 중 CA-lo와 CA-hi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통 음식이 즉석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이용할 의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 행사 때 외래 음식과 전통 음식을 이용하는 비율은 세 집단 모두 반반씩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 비율은 고려인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CA-lo 집단이 78.9%로 가장 높았고, 친근감이 높은 CA-hi 집단은 59.6%로 가장 낮았다. 전통 음식 만을 이용하는 비율은 CA-hi 집단이 40.4%로 가장 높았고, CA-lo 집단이 19.7%로 가장 낮았다. 설, 추석, 한식 등과 같은 명절 때 이용하는 음식의 비율은 가족 행사 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고려인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집단과 보통인 집단은 항목별 비율에 큰 차이 없이 80% 이상이 맛이 좋아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CA-hi 집단은 맛이 좋아서 라고 응답한 비율은 67.1%이고, 영양이 좋아서 선호한다는 비율이 18.0%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평소 먹어왔기 때문에 맛에 익숙해서 좋아한다는 비율도 13.8%로 CA-mo(8.4%)와 CA-lo(2.9%)에 비해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한 방향은 CA-lo 집단은 부분적으로 현대화해야 한다는 인식(60.4%)이 월등히 높았고, CA-lo나 CA-hi는 현대화해야 한다는 인식과 옛날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 비율이 비슷하였다. 즉, CA-mo 집단은 현대화와 전통 유지의 비율이 각각 48.2% vs. 43.4%로 현대화에 대한 인식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그러나 CA-hi 집단은 현대화와 전통 유지 비율이 각각 46.1% vs. 48.5%로 전통 유지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이 즉석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CA-hi 집단이 26.9%로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았다.

5.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지속성

1) 지속성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고려인 문화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지속성(Continuance of National Culture, NC)은 세대, 학력, 고향별로 유

Table 9. Compatriot affection group and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Ⅰ

Variables	Compatriot affection(CA)			*F* ratio
	CA-lo(Low)	CA-mo(Moderate)	CA-hi(High)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3.62	3.70	3.93	0.41
Table arrangement of traditional food	3.52	3.41	3.50	0.67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4.12[a]	4.08[a]	4.42[b]	3.10*
Affecting traditional food on health	3.97[a]	4.02[a]	4.39[b]	5.13**
Succeed & development of traditional food	4.56[a]	4.71[ab]	4.80[b]	3.66*
Intention of using modernized traditional food	4.01	3.94	4.06	1.13
Total N	384	83	167	

* $p<0.05$, ** $p<0.01$

Different superscripts (a~b) in a row indicate differences ($p<0.05$) in mean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able 10. Compatriot affection group and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Ⅱ

Variables	Categories	Compatriot affection(CA)			χ^2
		CA-lo(Low)	CA-mo(Moderate)	CA-hi(High)	
Preparing food for family events	Foreign food	1.4	0	0	19.17**
	Half & half	78.9	71.1	59.6	
	Traditional food	19.7	28.9	40.4	
Preparing food for national holidays	Foreign food	0	0.5	0.6	9.6*
	Half & half	77.5	70.5	59.6	
	Traditional food	22.5	28.7	39.8	
Reasons for preferring traditional food	Nutritional factor	7.6	8.4	18.0	41.88**
	Flavor	88.0	83.1	67.1	
	Used to eat	2.9	8.4	13.8	
	Way of cooking	1.6	0	1.2	
Need to develop traditional food into modernized	Tradition as it is	34.6	43.4	48.5	10.14*
	Partial modernizing	60.4	48.2	46.1	
	Do not know	5.0	8.4	5.4	
Total(N)		100(384)	100(83)	100(167)	

* $p<0.05$, ** $p<0.01$.
Total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대의 경우 지속성이 낮은 NC-lo 집단은 노인세대인 2세대 비율은 28.6%인데 비해 자녀세대인 3세 비율은 71.4%로 집단 내 차이가 컸다. 지속성이 보통인 NC-mo 집단은 NC-lo에 비해 집단 내 분포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지속성이 높은 NC-hi 집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컸다. NC-hi 집단은 2세대(49.2%)와 3세대(50.8%) 비율이 유사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NC-lo 집단은 3세대 비율이 높은데 비해 NC-hi 집단은 2세대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력은 무학이나 초등졸 비율은 NC-hi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NC-lo 집단은 무학이나 초등졸이 한 명도 없었다. 중졸 비율은 NC-lo 집단이 32.4%로 가장 높았고, 고졸은 NC-mo 집단이 30.1%로 가장 높았다. 대졸 비율은 NC-lo 집단이 5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NC-hi 집단(47.5%)이며, NC-mo 집단(44.2%)이 가장 낮았다.

고향별 분포는 NC-lo 집단(48.6% vs. 40.0%)과 NC-mo 집단(49.6% vs. 38.1%)은 도시와 도시 근교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NC-hi 집단(49.8% vs. 19.4%)은 도시와 도시 근교 비율의 차이가 컸다. 고향이 협동도시인 콜호즈인 경우는 NC-hi 집단이 30.9%로 다른 두 집단(11.4% vs. 12.4%)에 비해 월등히 더 많았다.

2)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지속성과의 관계

고려인의 문화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지속성(Continuance of National Culture, NC)이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2 및 13과 같다.

먼저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세 집단 중 지속성이 보통인 집단(NC-mo)과 높은 집단(NC-hi) 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비해, 이 두 집단과 지속성이 낮은 집단(NC-lo)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은 NC-lo(3.31)와 NC-mo(3.50)는 차이가 없으나, 이 두 집단과 NC-hi(4.04)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래 음식과 비교한 전통 음식의 선호도는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속성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집단 중 지속성이 낮은 집단인 NC-lo가 3.86으로 가장 낮았고, 높은 집단인 NC-hi가 4.39로 가장 높았다.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NC-mo(4.01)와 NC-hi(4.03)는 유의한 차이 없이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NC-lo(3.50)는 보통 정도로 평가하였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한 인식은 고려인 모두가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속성 수준에 따른 차이

Table 1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ntinuance of national culture

Variables	Categories	Continuance of national culture(NC)			χ^2
		NC-lo(Low)	NC-mo(Moderate)	NC-hi(High)	
Generation	2nd	28.6	31.4	49.2	7.05*
	3rd	71.4	58.6	50.8	
Sex	Male	57.6	55.4	49.8	1.69
	Female	42.4	44.6	50.2	
Education	No school	0	7.1	12.6	27.45**
	Elementary	0	2.7	4.7	
	Junior high	32.4	15.9	18.1	
	High school	14.7	30.1	17.0	
	College	52.9	44.2	47.5	
Family type	Nuclear	74.3	81.4	85.8	4.21
	Extended	25.7	18.6	14.2	
Hometown	Urban	48.6	49.6	49.8	23.98**
	Near rural	40.0	38.1	19.4	
	Rural(Kolkhoz)	11.4	12.4	30.9	
Total %(n)		100(35)	100(119)	100(480)	

* $p<0.05$, ** $p<0.01$.
Total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Table 12. Continuance of national culture and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Ⅰ

Variables	Continuance of national culture(NC)			*F* ratio
	NC-lo(Low)	NC-mo(Moderate)	NC-hi(High)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3.40[a]	3.98[b]	3.94[b]	9.54**
Table arrangement of traditional food	3.31[a]	3.50[a]	4.04[b]	10.08**
Comparing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3.86[a]	4.15[b]	4.39[c]	7.92**
Affecting traditional food on health	3.50[a]	4.01[b]	4.03[b]	3.53*
Succeed & development of traditional food	4.60[a]	4.53[a]	4.78[b]	3.51*
Intention of using modernized traditional food	3.80[a]	3.88[ab]	4.08[b]	5.79**
Total N	35	119	430	

* $p<0.05$, ** $p<0.01$.
Different superscripts (a~c) in a row indicate differences ($p<0.05$) in mean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를 비교해 보면 NC-lo(4.60)와 NC-mo(4.53)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두 집단에 비해 NC-hi는 4.78로 매우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통 음식이 즉석 식품으로 개발 될 경우 이용할 의사는 세 집단 중 NC-lo(3.80)와 NC-hi(4.08) 만이 차이가 있고, NC-mo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외래 음식과 전통 음식에 대한 이용도 및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속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성 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전체 고려인 가정의 2/3 정도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시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을 반반씩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1/3은 전통 음식만을 이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 역시 다수인 80% 이상은 맛이 좋아서이고, 그 다음으로

Table 13. Continuance of national culture and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Ⅱ

Variables	Categories	Continuance of national culture(NC)			χ^2
		NC-lo(Low)	NC-mo(Moderate)	NC-hi(High)	
Preparing food for family events	Foreign food	0	0	0	0.45
	Half & half	71.4	68.4	68.8	
	Traditional food	28.6	31.6	31.0	
Preparing food for national holidays	Foreign food	0	1.7	0.2	4.69
	Half & half	71.4	68.4	68.2	
	Traditional food	28.6	29.9	31.6	
Reasons for preferring traditional food	Nutritional factor	11.4	3.4	12.1	11.18
	Flavor	82.9	86.4	80.8	
	Used to eat	2.9	7.6	6.5	
	Way of cooking	2.9	2.5	0.8	
Need to develop traditional food into modernized	Tradition as it is	14.3	38.2	48.7	28.15**
	Partial modernizing	68.6	58.0	41.9	
	Do not know	17.1	3.8	9.4	
Total %(n)		100(35)	100(119)	100(480)	

** $p<0.01$.
Total may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선호 순위가 높은 것은 전통 음식에 내포된 영양 때문이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은 지속성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옛날 그대로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NC-hi 집단이 4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NC-mo로 38.2%이며, NC-lo가 14.3%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현대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NC-lo 집단이 68.6%로 가장 높았고, 지속성 인식 수준이 높은 NC-hi 집단이 41.9%로 가장 낮았다. 전통 음식이 즉석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이용 의사 역시 NC-hi 집단이 27.6%로 가장 높았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동일성, 독자성, 동포애, 지속성으로 구분되는 민족 정체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은 민족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식 생활 문화는 민족 정체성이 가장 잘 반영된 민족 풍습이며, 민족 공동체 정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동일성의 경우, 자신의 동일성을 높게 평가하는 집단일수록 전통 음식과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도 높을 뿐 아니라 명절 때 전통 음식만 이용하는 분포도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수 고려인이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였고, 상대적 분포는 심리적 동일성이 높은 집단이 더 높았다. 외래 음식과 비교한 전통 음식의 선호도,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리적 동일성이 높은 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고려인이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적 동일성이 높은 집단은 93.8%에 달하고 있다.

둘째, 고려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독자성도 전통 음식과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 가족 행사나 명절 때 전통 음식과 외래 음식의 이용도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독자성이 높은 집단은 영양과 맛에 대한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래 음식과 비교한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독자성이 높은 집단이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 방향에 대해 독자성이 낮은 집단은 현대인의 입맛에 맡게 부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독자성이 높은 집단은 옛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고려인이라는 친근감을 반영하는 동포애를 더 많이 느낄수록 가족 행사나 명절 때 전통 음식만을 이용하는 분포도 높았다. 외래 음식과 비교한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도,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동포애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친근감이 높은 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통 음식의 계승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즉석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이용할 의사 역시 친근감이 높은 집단이 더 높았다.

넷째, 고려인 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지속성은 그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외래 음식과 비교한 전통 음식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전통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지속성과 정적 관계를 지니고 있어 지속성이 높은 집단이 긍정적 영향에 대한 분포도 높았다. 전통 음식이 즉석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이용할 의사 역시 지속성이 높은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은 민족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이 민족 정체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전통 음식이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우선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리적 동일성, 독자성, 동포애, 지속성 등과 같은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세대, 학력, 고향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중 러시아 극동 또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직후 태어나 콜호즈에 거주하며 힘들게 정착했던 2세대가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민족 정체성의 중심에 있다. 이들이 전통 식생활 문화를 통해 민족 공동체 정서를 형성하고 민족 생활 풍습인 고려인의 전통 식생활 문화의 본질을 현지문화와 나름 조화를 이루며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인들은 음식 그 자체보다 조리와 섭취를 통하여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먹는 행위를 의사 소통의 매개물로 보고 이를 통해 가치관과 관계가 형성된다.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고려인을 연결하는 음식 공동체를 만들 뿐 아니라 이것이 토대가 되어 민족 정체성이 유지되고, 이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전통 음식이 지닌 고유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중앙아시아의 다른 민족에게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한민족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는 길일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9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문 헌

Appadurai RD (1998) *The social life of th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ckster A (1999) Keeping koster : Eating and social identity among the Jews of Denmark. *Ethnology Association Proceedings*, summer.

Jeong JY (2004) Food culture and identity of the Koreans in Uzbekistan. *Master's Thesi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ang JS (2001) National identity of Koreans and living culture in central Asia.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8: 105-131.

Lee YS, Lee JS, Lee SH, Joung JK (2004) A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of Kazakhstan in central Asi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 95-112.

Lee, YS, Lee, SH (2004) A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of Uzbekist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 1-18.

Lim, Y (2007) Uzbekistan's ethnic policy and identity of Korean Diaspora.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8) Koreans Overseas. http://www.mofat.go.kr

Park YS, Chung YS (2007)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ies of traditional Korean foods and foods of national holidays in the Yanbian region of China.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17: 153-163.

Tan, CB (2001) Food and ethnicity with reference to the Chinese in Malaysia. *Changing Chinese Food Ways in Asia*, Chinese University of Hone Kong.

(2009년 6월 26일 접수, 2009년 10월 8일 채택)